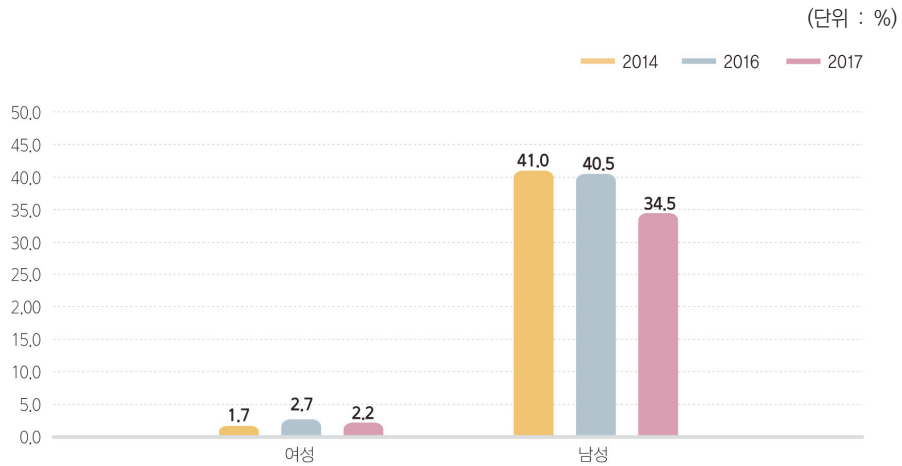


2) 건강행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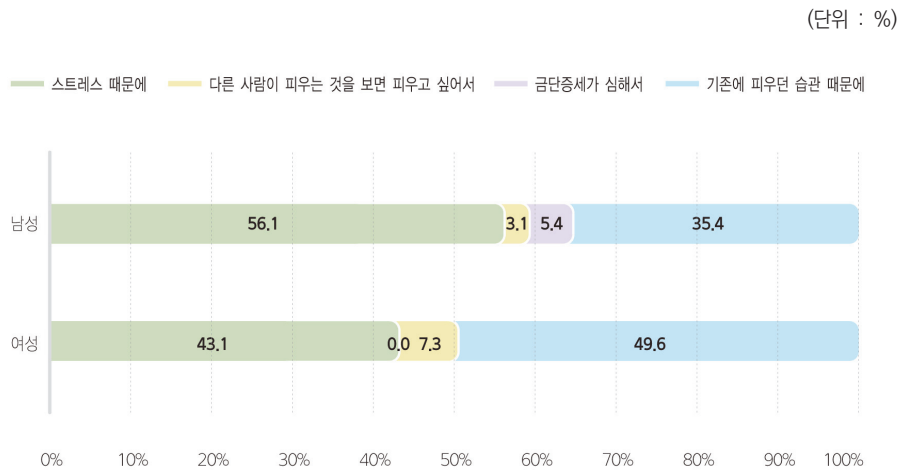
〈그림Ⅵ-2〉 성별 흡연자 비율

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, 울산광역시, 「울산 사회조사」.

- 20세 이상 울산광역시민 중에서 여성흡연인구는 2014년 1.7%에서 2017년 2.2%로 증가하였으며, 남성 흡연자의 경우 2014년 41.0%에서 2017년 34.5%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〈그림Ⅵ-3〉 성별 금연이 어려운 이유 (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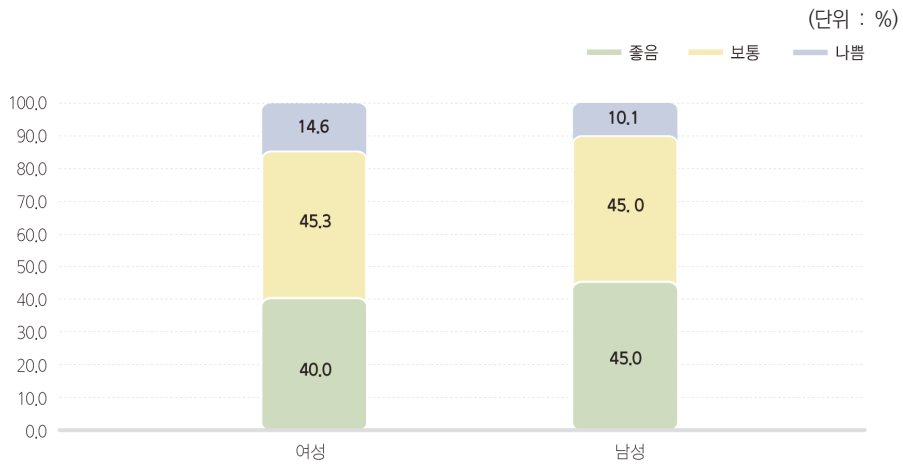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- 울산지역 흡연자 중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 결과,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. 여성의 경우에는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49.6%로 가장 높았으며, 남성은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56.1%로 가장 높았음. 한편 여성은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43.1%, 금단 증세가 심해서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7.3%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기존의 피우던 습관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35.4%, 금단증세가 심해서 5.4%,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연이 어려운 경우가 3.1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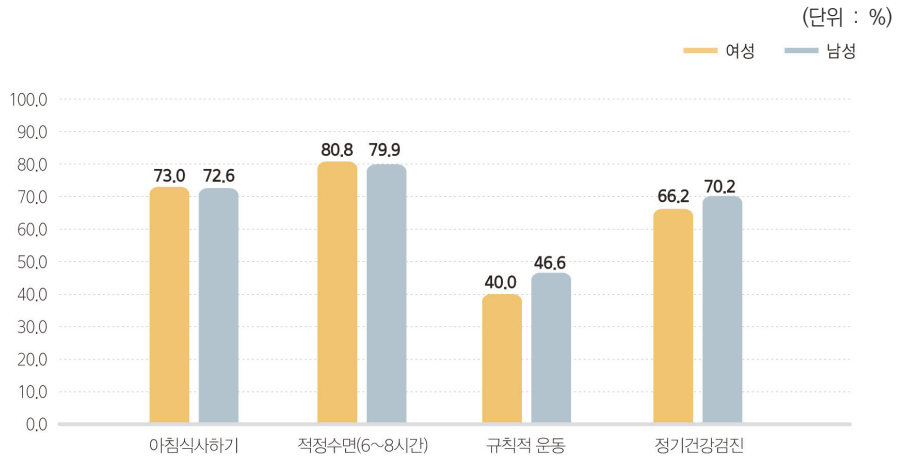
〈그림VI-4〉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(2017)



주 :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.
 자료 : 울산광역시, 「울산 사회조사」.

- 2017년 울산광역시민의 성별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, 여성의 45.3%가 보통으로 인식하고, 여성의 40%가 좋다고 인식하였고, 14.6%가 나쁘다고 인식함. 한편 남성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보통으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45.0%로 나타났으며,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는 10.1%로 나타남.

〈그림VI-5〉 성별 평소 건강관리 실천율 (20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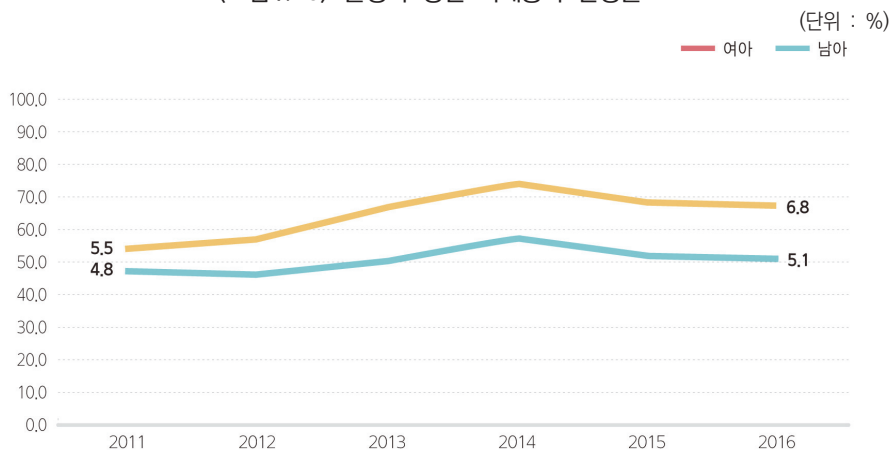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울산광역시, 「울산 사회조사」.

- 2017년 울산광역시민의 평소 건강관리 실천에 대해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, 남녀모두 적정수면(6-8시간)을 실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그 다음 순으로 아침식사를 실천(여 73%, 남 72.6%), 정기건강검진(여 66.2%, 남 70.2%), 규칙적 운동(여 40.0%, 남 46.6%)의 순으로 실천하고 있음.

3) 출산·질병·사망

〈그림VI-6〉 출생아 성별 저체중아 발생률



주 : 저체중아는 출생 시 체중이 2.5kg 미만인 경우임.

자료 :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.